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0년 12월 20일(주일) 제1324호

사진은 지난 14일 세 이레 기도회.

"평안하라 강건하라"

1월 2일까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으로 참여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한창이다. '평안하라 강건하라'를 주제로 지난 12월 14일(월) 시작된 세 이레 기도회는 내년 1월 2일(금)까지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세 이레 기도회에는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Zoom(줌)으로 참여할 수 있다. Zoom 접속은 사전링크(https://forms.gle/vEigQKCRQDfukNZL8)에서 신청하면 된다. CGNTV에서는 매일 밤 9시 세 이레 기도회를 재방송한다.

세 이레 기도회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17명이 설교한다. 지난 14일(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15일(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16일(수)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17일(목)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8일(금)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원로), 19일(토) 김경진 목사(소망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12월 21일(월)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2일(화)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23일(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24일(목)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25일(금) 박성민 목사(CCC 대표), 26일(토) 김형준 목사(동안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다.

Zoom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기도회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개역개정)을 지참하고, 바른 옷차림과 자세를 유지하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세 이레 기도회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유튜브 조회수 14일 2만6천, 15일·16일 1만6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Zoom 접속자는 하루 평균 400명이다.

윤희성 순장(양천공동체)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뿐이라는 생각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매일 새벽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명대 성도(영어예배부)는 "자기도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대견하고 기특한 아이와 함께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는 요즘 뜻깊은 기도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0년 온누리 성탄축하예배

12월 25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새찬송가 126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2020 성탄축하예배를 12월 25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에 드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성탄축하예배 실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중계한다. 2020 성탄축하예배는 SDG 챔버 연주, 성탄특별영상, 크룩스 특순, 버추얼 콰이어, 창작 뮤지컬 '꽃보다 슈퍼스타',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바리톤 김주택 특순 순으로 진행된다.

성탄 버추얼콰이어(각자의 공간에서 녹음한 파일을 같은 공간에서 부르는 것처럼 만든 영상)에는 온누리교회 예배교역자, 성가사, 찬양사역팀원 등이 참여한다. 특별영상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성탄 고백과 축하 메시지가 담겨있다. 창작뮤지컬은 CH PLUS청년부 연극팀이 '꽃보다 슈퍼스타'를 주제로 공연한다. 작지만 따뜻한 동네 슈퍼마켓에서 실직한 사람, 집이 없는 신혼부부, 남편에게 버림받은 임산부 등이 아기 예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CGNTV 아시아웹어워즈, 한국기독언론대상 수상

KNOCK '계도왕'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

CGN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유튜브 콘텐츠가 국내외 주요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KNOCK 유튜브 시리즈 '계도왕'이 제4회 아시아웹어워즈 베스트 웹필름 단편과 인물 부문에서 수상했고,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이 제 12회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KNOCK 유튜브 시리즈 '계도왕'과 추모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은 CGNTV 웹사이트, 유튜브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대학청년부 '2020 사랑愛나눔' 사역 시작

서울 시내 불우 이웃 1천 가구에 생필품 지원

대학청년부 '2020 사랑愛나눔' 사역이 시작됐다. 12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 동안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별로 진행된다. 사역 시기는 섬기는 기관 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대학청년부 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서울 시내 불우 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에 생필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한다.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기관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최소 인원만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와 사직주민센터, J4U청년부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는 등대교회를 섬긴다.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 허브대학부는 신양장로교회와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통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본부장)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랑愛나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이웃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수원,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

수원 김소리 목사, 강동 이준호 목사 취임

수원,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가 이취임한다. 수원 온누리교회 신기섭 목사가 이임하고, 김소리 목사가 취임한다. 강동 온누리교회 노치형 목사가 이임하고 이준호 목사가 취임한다.

신기섭 목사는 서빙고공동체를 섬기고, 노치형 목사는 행정담당 및 중종로공동체를 섬긴다.

수원, 강동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취임예배는 각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12월 23일(수) 수요저녁예배 시간에 방송된다.

특집_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4-5면 **기획_** 한 생명 지키는 교회의 역할 6면 **선교_** MK 간증집 〈마주보다〉 발간 8면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윤리학, 약자 보호가 윤리의 기준이 될 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도덕률의 기준 설정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들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 대해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이라는 통일된 접근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이 정과 반의 투쟁을 통해 합을 이루는 변증법적 변화 중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이 세계관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체제이다. 자본주의 체제 속의 부르주아(정)와 프롤레타리아(반)의 투쟁을 통한 변증법적 결론인 사회주의(합)를 거쳐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변증법적 상향발전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와 함께 진화론을 모든 존재의 기본이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기준도 변증법적 변화의 상태에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여긴다. 절대적 도덕률을 무시하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에게는 도덕성이 없다는 비판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신의 계명에 근거한 기독교의 윤리를 거부한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이 계급이 무너지면 기독교 설화를 근거로 한 도덕률도 바뀔 것이다. 따라서 도덕률의 기준은 역사의 맥락 가운데에서 설정되고 진화할 것이다."

스탈린에 이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흐루시초프 역시 "사회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삶 속에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절대적 도덕률을 부정했다. 이처럼 계급 간 도덕률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게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선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 태도를 취한다. 다수의 공리를 선으로 정한 경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기에 핍박받는 약자인 노동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악독한 방법이 동원된다 해도 선하며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도덕률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공산당의 원하는 바가 도덕률이 될 것을 예견하였고, 실제 그렇게 되었음을 소련과 동유럽에서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 실험이 잘 보여 주었다. 강제노동수용소를 통한 강제적 교화나 이웃 간의 상호감시 등은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산당만을 위한, 사실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한 도덕률이 중국과 북한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포스트모던은 좌파 지식인들이 만든 행동양식이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 개인에 가해지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둔다. 이들의 목표는 이전의 모던시대를 관통하던 메타네러티브(절대 진리, 절대 도덕률)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리이고 선인지를 알려주는 메타네러티브가 없다. 우리는 리틀네러티브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마다 자기들만의 필요를 충족시킬 '작은 규칙들'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도덕적 상대주의이다.

포스트모던주의자에게 선은 비주류, 소외당하는 사람, 여성, 유색인종, 가난한 자, 성소수자들을 억압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던지 그들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를 규합하려 한 것처럼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을 규합하여 국가, 직장, 교회, 가정의 기본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그들은 기독교가 지켜온 전통적 가치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네오막시스트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구사회의 성적인 영역을 집중공격해 왔다. 성적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을 촉진하며, 혼외 자녀를 양산한다. 혼전 성관계와 동거 역시 낙태와 비혼 유지를 촉진한다. 이 모든 것은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생육문화명령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회인 가정과 교회를 허물고, 거룩한 성과 가정의 수호라는 보수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을 요구하는 법이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가 지켜내려는 보수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입법인 것이다. 인권을 내세우며, 약자와 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도덕률의 기본으로 내세우는 공산주의와 포스트모던의 주장은 관대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같은 4대 취약계층에 대해 형제로서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인권과 약자보호의 목적은 규합된 힘을 이용한 권력과 이익 쟁취임이 분명하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거나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명령하신다. 인간이 만든 선악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에 견주어 재평가해야 한다.

묵상: 약자 혹은 소수자 보호가 최우선 되는 도덕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 남편은 제가 하는 말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데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차장에 빈 자리가 보이길래 "여보, 저기 자리 있어! 저기에 주차하면 되겠는데?"라고 했더니 글쎄 "나도 눈 있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집안일을 할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도와주기 싫다나요? 늘 삐딱하고 퉁명스러운 제 남편, 도대체 왜 그러나요?"

남자는 대부분 충고받는 것을 싫어한다. 인정받고 신뢰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관심을 받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과 다르다. 여자는 "여보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힘들지?"라고 걱정해주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한다. 남자는 항상 여자 앞에서 혼자 힘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특히 남녀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살맛나게 하는 묘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데 있다. 남편이 아내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남편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인정과 신뢰, 칭찬이 사랑의 언어다.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먼저 빈 자리를 보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대개 아내다. 아내에게는 관심과 배려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보, 저기 빈 자리가 있네요"라고 조언 혹은 충고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과 신뢰가 사랑의 언어인 남편에게는 그것이 "그것도 못하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연처럼 "나도 눈 있어"라고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이다. 염려와 관심과 배려가 사랑의 언어인 아내는 '내 남편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조언한다. 그럴수록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여자의 사랑의 언어는 염려와 관심, 배려이기 때문에 자상한 남편을 좋아한다. 자상하게 염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남편을 원한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와 달리 거들어주는 대신 잘한다고 인정해 줄 때, 잘할 것이라고 믿을 때 사랑을 느낀다. 가령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주차를 어떻게 그리 잘해요?"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 그릇을 채우는 비밀이다.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들이 집안일을 거들어주지 않는다고 많은 아내들이 불만을 토로한다. 막상 집안일을 도와주면 끊임없는 아내의 조언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이 하기 싫다고 말하는 남편들도 많다. 남편의 귀에는 아내의 조언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는 지시나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흠뻑 칭찬해주자. 맡긴 일을 끝냈을 때 남편을 향한 무한한 칭찬을 해주자. 남편들은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그 일에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기꺼운 마음으로 아내를 도울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생명 존중의 축복

열왕기상 17:7~16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죽음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절망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존재합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절망을 키르케고르는 '반항의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함이나 반항에 빠져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절망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을 인간의 자유의지 영역이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이후 인본주의와 유물론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낙태나 자살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철저하게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인간의 생명 또한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속임수요, 전략일 뿐입니다.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살인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사 43:1).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구원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엘리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나타났던 사건 속에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비는 생명을 지탱하는 물의 근원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으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악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인간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자동으로 착각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보시기 때문에 비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아침마다 자동으로 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 주시기 위하여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영혼들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악함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멈추는 것으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무명의 시골 사람 엘리야가 당시 최대 권력자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 주십니다.

이제 시내가 마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이방 동네입니다.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시돈은 이세벨과 아합 왕의 부인, 우상숭배의 진원인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바알 숭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이 시돈 지방입니다. 시돈 지방은 그릿 시냇가로부터 16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르밧은 시돈에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먼 마을까지 엘리야를 보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 돌봄과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없어도 당시 과부의 신분은 가장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이 오면 더 큰 고통이 있을 텐데 과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매우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빵도 좀 주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12절).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여인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금 남은 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두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전후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의 위기에 있는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다려주는 한 사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한 사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인과 아들의 생명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여인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14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의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엘리야를 보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인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이기적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있을 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14면에 계속〉

온 가족이 다 함께, 세 이레 기도회!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가 지난 12월 14일(월)막 올랐다. 오는 1월 2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벌써 수많은 성도들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 Zoom(줌)으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Zoom으로 참여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성도들이 많다. 매일 4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 화제다.

새벽을 깨우는 윤희성 순장네와 이명대 성도네

윤희성 순장(양천공동체)네가 그 주인공이다. 윤희성 순장은 아침잠이 많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남다른 방법도 고안했다. 윤희성 순장은 아이들이 세 이레 기도회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정리할 때마다 용돈을 준다. 그 작은 동기부여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크게 도울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윤희성 순장은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가정과 개인의 신앙도 재점검하고 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윤희성 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커졌다. 거래처가 소진되고, 하나둘 문을 닫는 동종업계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 불안한 마음을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평안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윤희성 순장은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

이명대 성도(영어예배)네 가족도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출근 시간이 이른 남편은 출근길과 사무실에서, 이명대 성도와 자녀 이한비 군은 집에서 세 이레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달콤한 새벽잠을 이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이한비 군의 신앙이 참 귀하다.

이명대 성도는 "가정예배와 세 이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위기일수록 더욱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김영선, 홍하영 기자

12월 14일(월)

오직 믿음으로

마태복음 14:25~33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모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험에서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마터면 재난 속에서 인생을 완전히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고난을 극복합니다. 재난 극복의 해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2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은 재난의 상황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난 속에서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겁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ego eimi, I am) 두려워하지 말라"(27절)고 하십니다. I am, 하나님의 자기 선언 메시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인도자로 모세로 쓰시려고 할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I am that I am)"(출 3:14)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I am)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고난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셋째,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물 속에 빠졌던 베드로의 절규 같은 기도(30절)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오르매"(31~32절).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합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어김없이 약속대로 손을 내미시는 바로 그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신 그분이 오늘 재난의 상황에서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임재 덕분에 배에 올라 다시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극복하지 못할 재난은 없습니다. 그 손을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5일(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6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원"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주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는 가겠는데 남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 물으면 그 이름을 모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자'라는 말씀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시험이 인간이 가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유혹 앞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입에 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즉 죽으리라. 사탄의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자유가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자유는 인생의 기본입니다. 자유 위에 거룩도 있습니다. 서양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동양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버릇없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에 자유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일본의 메이지유신 때 유럽의 고전을 번역하면서부터입니다.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단어가 자유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유를 번역할 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번역한 성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고 했습니다.

1382년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며 서문에 "이 성경은 앞으로 반드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말은 왕을 향한 가장 불손한 말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자유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어서 시민혁명, 청교도혁명 등을 이뤘습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세웠습니다. 왕이 없이 시작된 나라 미국에서 대통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그 자유가 대한민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민족들이 심히 어렵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보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12월 16일(수)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1~5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계실까요?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Pardon(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배로 감당하셨습니다(3절).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둘째, ‘Presence(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던져주시는 위로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건네주시는 위로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렵고 외로울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셋째, ‘Power(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위로받으십시오.

12월 17일(목)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손길

요나 1:17~2:1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코로나19 국난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할 종교’라는 정죄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수치’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바다 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낸 구조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17절).

큰 물고기는 요나를 구해주는 구조선입니다. 다시스로부터의 구원,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를 거룩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지려는 것입니다.

둘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의 훈련선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의 3일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입니다. 그곳에서의 3일은 죄의 뿌리와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적을 받는 문제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속화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가져온 뿌리와 습성, 가치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십니다. 큰 물고기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입니다.

셋째, 큰 물고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원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욘 2:1). 고난의 물고기 배 속은 내 영혼의 기도원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경험하는 어둠과 두려움은 요나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그 영혼이 다시 숨 쉬게 하는 인공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인생이 살아나고, 인생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폭풍을, 또 한 손에는 물고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손으로 우리를 던지시지만, 또 다른 손으로 우리를 구조하십니다. 한 손에는 공의가, 한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심판의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깊은 바다 밑까지 우리를 추적해 옵니다. 공개적으로 공의의 채찍을 내려치셨지만, 비밀스럽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세상의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깊이 뿌리박힌 죄의 습성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선임을,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영혼의 기도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12월 18일(금)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당신에게 공급되나?

에베소서 1:1~6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원로)

2천 년 전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은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발각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얼마 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못된 인간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사위가 지난 연말 아주 예쁜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담아 제주도에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끊이지 않고 퍼졌습니다. 어려워하는 사위를 아비의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수억 배 더 아프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고통을 겪는데 아버지로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사형만은 막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호주머니도 좀 털고 해야지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다른 옥중서신을 봐도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암시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택하셔서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고,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택하셔서 아들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 둘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네 아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 먹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더 힘의 원천이 되는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의 마음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생명 지키는 교회의 역할

성경적 성교육, 미혼모 지원, 제도개선 목소리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시끄럽다. 낙태죄 개정안뿐만 아니라 낙태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오간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혜도 필요하다. 자칫하면 이해와 위로 없는 편견과 정죄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줘야 한다. 정죄보다는 이해와 사랑,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렘 1:5).

최근 여러 설교와 기독교 강연 등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다. 낙태죄 개정 및 낙태죄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계획까지 세워두신 생명을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지우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인간의 권리를 앞세워 생명을 해하는 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연약하고 힘없는 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 인권 단체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더불어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 인식, 책임감 등을 교육하는 성경적 성교육이다. 또한 엄청난 편견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생명을 지켜 낸 미혼모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다.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익명출산법' 개정에도 함께 목소리 높여야 하고, 임신과 낙태에는 남성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생명 지키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에게는 미혼모 친구가 한 명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아빠 없이 클 아이를 걱정한다. "그러게 왜 피임하지 않았냐"며 그 친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한 생명을 지켜낸 내 친구가 자랑스럽다.

친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이가 생겼다. 당시 사귀고 있던 2살 연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다. 3년 가까이 연애를 했던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 친구의 임신 사실을 안 남성이 낙태 비용을 주고 도망쳤다.

"처음에는 저도 아기를 지워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했고, 남편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모두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떠날까 봐 겁도 났어요.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저를 욕하기도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후회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 친구가 어느 상담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친구는 그분과 상담하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를 상담해주셨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낙태와 혼전 성관계가 죄인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당연히 집사님께서도 저를 나무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겁먹은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 봐주시고 제 상황과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그게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상담을 받으면서 집사님께서 낙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해주셨어요. 아이를 낳는다면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알아봐 주셨고요. 저에게는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도 말씀해주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이 어느 날은 위로가 되고, 또 어느 날은 용기가 됐어요."

그 친구는 자신에게 생긴 아이를 지키고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그 귀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날 선 비난에 움츠러드는 날도 많았다. 아기를 낳으면 당장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렵게 다잡은 마음을 수백 번씩 흔들어댔다. 그때마다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이 친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작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교회가 태아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침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심리학 용어 중에 '죽은 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한 예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방 안에서 뛰지 말아라", "식당에서 떠들지 말아라"고 요구한다. 뛰어 놀기 좋아하고, 한참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특성과 동떨어진 명령이다.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은 당연히 뛰어다니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방 안에서 뛰지 않고, 식당에서 떠들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다. 방에서 뛰지 않고, 식당에서 떠들지 않게 하려면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효과적이다. 스킨십과 성관계에 대한 욕구 역시 마찬가지다. 성욕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다. 성욕구를 단순히 "혼전 성관계는 죄"라는 말로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 교회는 성관계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행위라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성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줘야 한다. 한순간의 쾌락과 무거운 책임 사이에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에 '성경적 성교육 학교'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미혼모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칭찬 받아 마땅한 어머니들이다.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은 것을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한 생명을 지킨 용기를 칭찬해주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회가 미혼모 쉼터와 시설 운영 및 지원, 양육 지원, 생계 지원 등을 해주면 더욱 좋겠다.

아이의 생명은 지켰지만, 현실적으로 양육이 힘든 이들도 있다. 그래서 양육문제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미혼모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 중요하다. 이기복 목사(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온누리교회 협동목사)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미혼모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그곳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곳이다. 생명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이후 일들은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대담한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도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교회는 낙태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생명을 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익명출산법' 개정에도 뜻을 모아야 한다.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신과 낙태에는 남성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영화 '언플랜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가 12월 17일 개봉했다. 낙태클리닉 소장에서 생명운동가로 변신한 애비 존슨의 실화를 그린 영화이다. 애비 존슨은 8년 동안 무려 2만2천 건이 넘는 낙태에 가담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태의 실상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돌아서게 된다.

낙태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 이 영화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와 김술람 성도(제자광성교회, 아미필름 대표)가 왜 우리가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언플랜드와 원더우먼 경쟁, 우연일까?

오창화 집사
(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의 주인공 애비 존슨은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에서 약 2만2천 명이 낙태를 결정하도록 상담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낙태의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 영화 언플랜드는 낙태의 진실을 마주한 애비 존슨이 국제가족계획연맹을 그만두고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이 주요 줄거리다.

낙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귀한 영화가 예매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12월 23일 개봉하는 영화 '원더우먼'으로 인해서 모든 상영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화 원더우먼은 어떤 영화일까? 아름답고 용감한 여인이 온갖 액션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분명 재미있는 영화일 것 같다. 그런데 여신처럼 표현된 원더우먼의 사상적 배경에 페미니즘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나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영화 원더우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영화는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 이 소설을 쓴 원작자가 '윌리엄 몰턴 마스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스턴은 심리학자이면서 거짓말탐지기를 만들어 낸 사람이다. 원더우먼의 무기 '진실의 올가미'는 마스턴의 거짓말탐지기를 모티브로 한다.

작가 마스턴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것도 동시에. 첫째 부인은 엘리자베스 할로웨이, 둘째 부인은 마스턴의 학생이었던 올리브 번이다. 할로웨이는 마스턴과 올리브 번과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세 명이 동거했다. 기존의 전통적 가정이 아니라 일부다처 가정이 되었다. 올리브 번은 IPPF 전신인 '산아제한협회'를 설립한 마가렛 생어의 조카다. 올리브 번의 엄마인 에셀 번 또한 언니 마가렛과 함께 산아제한을 강력하게 주장한 유명한 페미니스트 운동가였다. 마스턴은 둘째 부인인 페미니스트 올리브 번을 모티브로 원더우먼 소설을 쓰게 되었다. 이처럼 원더우먼의 사상적 배경에는 낙태찬성운동을 시작한 마가렛 생어와 에셀 번의 페미니즘 운동과 IPPF의 사상이 깊숙히 숨어있다.

원더우먼이 탄생한 지 80년이 흘렀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 형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와 낙태를 찬성하는 페미니즘 단체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극장에서 언플랜드와 IPPF 설립자의 사상이 숨어있는 원더우먼이 부딪힌다.

현재 영화 언플랜드의 예매율이 고작 0.4% 정도라고 한다. 매우 저조한 수치다. 이에 비해 원더우먼은 예매율 35%라고 한다. 높은 예매율을 보이는 원더우먼으로 인해 저조한 예매율인 언플랜드가 상영관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화 언플랜드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초대해서 보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드라마보다도 드라마 같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곳에 설지, 아니면 태아를 죽이는 일을 용납할지 결정해야 할 때다.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영화 언플랜드 홍보를 통해서 낙태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낙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태아의 생명 없앨 권리, 그 누구에게도 없다!

김술람 성도
(제자광성교회, 아미필름 대표)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여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애비 존슨이다. 애비 존슨은 미국 최대 낙태클리닉에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상담해주는 카운슬러다. 올해의 직원상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유망주다. 기관은 그녀의 성과를 원했고, 그녀도 이곳에서의 일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영화 '언플랜드'의 첫 장면을 보도록 하겠다. 애비 존슨이 낙태 수술실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낙태클리닉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수술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 수술실에서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배 속 태아가 살아 움직이는 초음파를 보게 됐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한 애비 존슨은 견디지 못하고 수술실을 뛰쳐나온다.

애비 존슨은 센터가 하는 일이 낙태를 줄이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센터 봉사활동을 처음 가게 된 날에도, 정직원이 되어 상담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도와주고 낙태를 줄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겨 낙태를 한 경험이 있었다.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한 나날을 꿈꿨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 남편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던 애비 존슨은 낙태를 한다. 그때 센터에 봉사활동도 나가게 됐다. 그곳에서 '약물낙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약물로 낙태를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이뤄지는 일이고, 생리통 정도의 아픔이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 없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 몇 시간 뒤 애비 존슨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경험했다. 마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고통이었다. 무려 8주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센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법도 한데, 애비 존슨은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애비 존슨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 그레이스라는 예쁜 딸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레이스가 정말 이름처럼 은혜였는지, 출산과 동시에 애비 존슨에게 승진 기회가 찾아온다. 센터 소장 셰릴이 본부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녀의 자리에 애비 존슨을 추천했다. 그렇게 애비 존슨은 최연소 소장이 된다. 그리고 그녀는 센터가 지어진 진짜 목적을 알게 된다. 그곳은 여성들의 낙태를 줄이는 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를 이용하는 기관이었다. 애비 존슨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해되지 않는 의견에 손을 들었던 애비 존슨은 그날로 셰릴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리고, 결국 징계까지 받는다.

생명보다 산모의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는 센터가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낙태하는 과정과 산모에게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도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이의 생명은 산모의 생명과 동등하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의 생명권보다 산모의 결정권을 우선시한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이 가지는 의미도 이와 비슷하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정자를 골라 아빠라는 존재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그들이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은 여러 형태의 정보습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념에 의해 가치관을 결정한다. 신념은 인간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게 만들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생명이라는 고귀한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까? 태아냐 산모냐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다. 수정된 그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태아의 생명을 없앨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낙태라는 중대한 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화가 바로 '언플랜드'다. **문의: 010-9228-3229**

2000선교본부 또 하나의 열매

선교사 자녀 23명의 간증 그리고 은혜

MK 간증집 〈마주보다〉 발간 … PDF 파일 제공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를 생각하면 괜스레 대견하고 애틋한 마음이 든다. 아마도 부모를 따라 선교사가 된 선교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교지에서 낯설고, 외롭고, 때로는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꿋꿋이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 부모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사 자녀 23명의 간증과 부모들의 편지를 담은 간증집 〈마주보다〉를 발간했다. 선교사 자녀 23명과 부모들의 눈물로 쓴 MK 간증집 〈마주보다〉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선교지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고백했다. 사진은 시엘 형제 가족과 선교지 주민들.

선교사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그만한 고충이 있다. 윤은서 양(13세, 중동 E국)은 빨리 중동 B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E국을 새롭고 즐거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곳에서 지내보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6명이 봉고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모두가 학교생활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공부도 어려웠기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죽했으면 학교에 도착하면 교실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느릿느릿 걸었던 적도 있어요."

은서 양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깨달으면서 중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학교 가는 길에 예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집 앞에 공터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 본 자부심

TV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탄 시엘 군(19세, 아프리카 S국)은 그날의 묘한 감정을 잊지 못한다. 동양인은 자기 혼자뿐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세네갈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아프리카 대륙이 꽤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기, 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몇 개월을 달빛과 햇빛을 친구 삼아 살았어요. 한국에 살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귀한 경험을 했어요."

시엘 군은 세네갈에서 적응 기간을 거쳐 아프리카 S국에 입국했다.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시엘 형제도 언어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작은 사립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다니게 되었는데 불어가 아니라 영어를 새롭게 배워야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중학교 과정을 따라잡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해야 했고, 친구들 사이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또한 이슬람의 강한 느낌과 어두운 분위기가 나의 몸과 영혼까지 힘들고 지치게 하더라고요."

시엘 군은 그 힘들었던 S국에서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다시 세넬갈에 왔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시엘 형제는 요즘도 걱정이 많고 어려운 일도 적지 않지만,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

"요즘도 가끔 걱정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렵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기에 앞으로도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에게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2년이나 늦어졌지만 다른 친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기에 자부심이 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나의 뒤를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 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해줄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선교지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자녀들 곁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돕고 계신다. 김민서 양(16세, 동아시아 A국)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민서 자매는 A국 한인교회 찬양팀에 푹 빠져있다.

"주말마다 무의미하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었는데 찬양팀에 들어가면서 주말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정말 뜻깊어요. 그 덕분에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찬양을 인도하게 된 민서 양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담아 찬양을 준비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첫 찬양이 끝나고 음향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민서 자매의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막막함과 원망이 가득 채워졌다.

"갑자기 마이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주님을 보게 하소서'를 불렀어요. 가사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요. 그랬더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라는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저는 찬양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저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9살에 아프리카 F국에 도착한 김환 군(17세, 아프리카 F국)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다"고 고백한다. 벌레, 쥐, 아이들의 놀림, 테러 위협 등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이 형제를 돌보셨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이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을 느끼면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배우고 경험하게 한 일을 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한정원 양(19세, 국내)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은 고난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선교지 아이들 편만 들어주는 아빠에게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새 옷을 입고 있는 소수민족 아이를 보고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왜 선교사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할까요?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추방당했던 그날도 하나님께서 제게 남기신 마음은 원망과 증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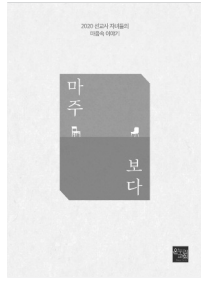
간증집 〈마주보다〉에는 선교사들의 애뜻한 사랑고백도 담겨있다. 고난과 역경을 은혜로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참 귀하다.

"은서야. 아빠가 선교사라서 주말에 은서와 함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은서가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도 있지만, 아빠는 은서가 선교사 가정에 태어난 것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린 시엘의 손을 꼭 붙잡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느낌을 아빠 엄마도 잊을 수가 없구나. 아빠 엄마도 척박한 땅에서 느껴지는 메마름과 언어에 대한 부담감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녹초가 되어 버렸지. 시엘이의 간증을 읽으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동역자이며 동료 선교사인 것을 느꼈단다.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며 성장해준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2000선교본부에서 선교사 자녀 23명의 간증과 부모들의 편지를 담은 간증집 〈마주보다〉를 발간했다. 간증집 〈마주보다〉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그 어떤 간증보다 귀한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해 줄 것이다.

문의: 02-3215-3121



MK 간증집 〈마주보다〉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이 정착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봐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와야 할 이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나는 이주민들을 섬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년 동안 부천역 인근에서 이주민들을 돌보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이주민들의 고충상담, 이주배경·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긴급의료비 및 긴급생계비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피부색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인과 결혼이주민들에게만 지급되었다. 대다수 이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지난봄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이주민 약 80만 명이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에 놓였던 적도 있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고려인 동포 및 조선족 동포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다. 아프리카지역에서 온 유학생들도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일자리를 잃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초 가나에서 온 청년이 친구가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현장에 가보니 한 청년의 다리가 썩어들어가는데 15일 정도 방치되어 있었다. 큰 부상도 아니고 컨테이너 모서리에 정강이가 찍혔는데 소독을 하지 않아 살이 썩은 것이었다. 그 청년은 수술을 잘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송인선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왼쪽)는 밤낮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결혼이주민를 도와달라는 연락도 있었다. 4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올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집에만 있으면서 심각한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다. 한 달 동안 집에서 술만 먹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긴급모금을 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자매는 "한국에 와서 이런 정을 처음 느껴본다"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양 팔꿈치 아래를 잃은 필리핀 형제에게 연락이 왔다. 그 형제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검사를 받았는데 긴급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병원비가 600만 원 정도 나왔다. 병원도 난감하고 부부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150만 원을 모금해서 병원에 전달하며 사정했다.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기관 운영비, 건물 임차료, 전기세, 임직원들의 인건비 등은 수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후원자들의 후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20년째 이주민들만 바라보며 때로는 가정보다 이주민사역에 미쳐있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그래도 위로는 뚫려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 땅에 온 나그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문의: 010-2756-3229
후원계좌: 140-009-440818(신한은행)

/ 송인선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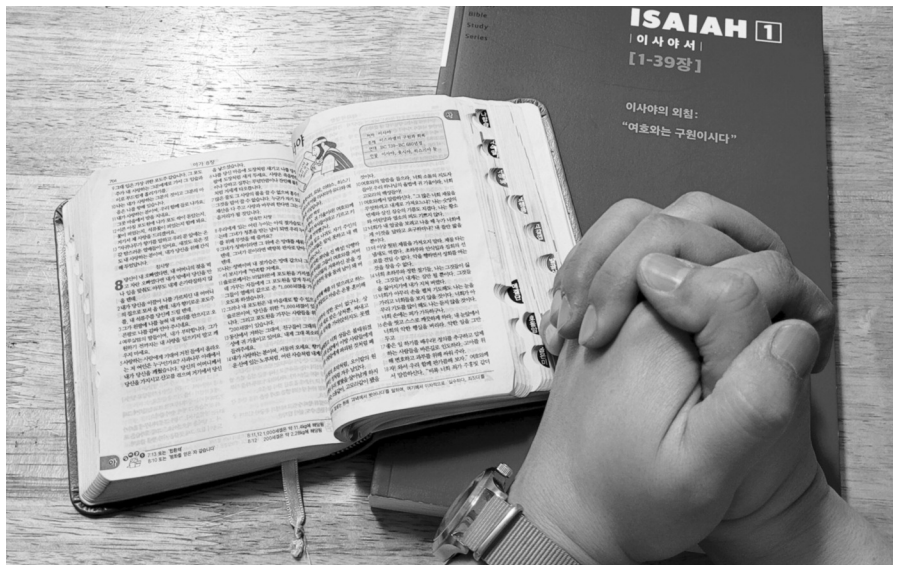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이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온라인 OBC 이사야 과정을 수료하면서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만 가득하다고 여겨왔던 이사야 말씀이 다르게 읽혀졌다.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기록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인류의 구원사역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온라인 OBC 강의를 듣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셨다. 우리 가정은 11년 전 신혼부부 특약으로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방 두 칸 임대아파트지만 당시 두 살 된 아들과 태중의 딸, 네 가족이 살기에는 넉넉하고 감사한 공간이었다. 이제 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각자 방이 필요하게 되었고, 3년 전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에 조금 더 넓은 집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 되었고 감사하게도 다자녀 세대에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시기에 맞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나 전세금이 우리에겐 큰 금액이었다. 계약금 마련부터 벽에 부딪혔다. 이사 잔금도 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여기저기 분주히 알아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 은행을 다니며 대출상담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비관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장모님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셨다.



강덕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는 이사야 과정을 통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기다려 봅세."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지만 쉽게 믿음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얄팍한 신앙을 회개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주신 것도 은혜, 이것을 주지 않으셔도 장차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니 더 큰 은혜라 여기게 되었다.

뒤늦게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지는 뒤늦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몹시 서운하게 생각하셨다.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이번 달에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전 사전점검을 위해 새 아파트에 방문했다. 먼지가 쌓인 거실에 아내와 아이들 모두 둘러앉아 기도했다. 새로운 거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집을 둘러보는데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다. 발코니 한 켠의 대피공간, 우리 부부가 바라던 '워룸' (영화 'War Room'의 기도실)이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 떨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대상을 가르쳐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날마다 인지하며 살아가고, 그 교훈과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강덕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최근 2년 동안 성경통독을 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잘 심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번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들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조원들과 나누려고 했더니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강의를 듣고 또 들으면서 나눔을 했더니 무뎌진 마음이 기경되고, 복음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과정에서 박성은 목사님이 수없이 강조하신 대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나의 마음 밭을 기경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비로웠다.

특히 12살 난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며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새롭게 다가왔다.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다. 최근 사랑챔버 어머니 기도방에 올라온 사연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했다. 사랑챔버 단원 한 명이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차도가 없어 괴로워하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시며 선포하신다.

채정희 권사(신용산공동체)가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을 수강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사랑챔버 단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육체적 질병을 넘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현실에 끌려다니는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부활로 사망은 패했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이번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과정에 참가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인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조장님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관계의 절벽에 서 있는 나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면서 기다려달라고 조언하셨다. 현재는 미완성이지만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단 10:12).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해석을 알게 된 것처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겸비하고 싶다. 그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싶다. 환상은 받고 싶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은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싶다.

/ 채정희 권사(신용산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에 출석하고 있다. 일본어예배부에서 하는 주일학교 '푸치 파푸스'(취학 전 아동), '파푸스'(초등학생), '코히츠지 클럽'(국제결혼 커플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혀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주 2회 등교하는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없는 날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잠시 여유가 생겼다. 그 시간에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 영상을 찾아보았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회 식구들이 화면 너머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내 모습에 내가 놀랐을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몇 달 동안이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시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카오카 유미 자매(일본어예배부)가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을 듣고 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전자료를 보며 예습하고, 김철희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Zoom으로 조원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막혀 있던 관이 뚫려 물이 흐르게 된 것처럼,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억압되어 있던 내 삶의 리듬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울해진 나의 마음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강의 시작 직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막상 모니터 앞에 앉으면 피곤이 몰려오기도 했고, 열심히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소그룹 교제 시간에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Zoom을 통해 목사님, 전도사님, 조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나에게 목사님이나 조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그들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는 것도, 국가 간 이동도 어려워졌다.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는 막중한 상황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신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과정에 참가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주시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신 김철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 다카오카 유미 자매(일본어예배부)

CGNTV 성탄 및 연말 특집프로그램

단편영화 '스물여든',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

CGNTV에서 12월 24일 밤 10시에 상영하는 단편영화 '스물 여든'은 80대 노인과 20대 청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다.

CGNTV가 성탄 및 연말 특집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영화 '스물여든', '아이 캔 온리 이매진',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 등이 방영된다.

CGNTV는 성탄 주간 매일 밤 특집 영화를 방영한다. 12월 20일 밤 11시 '세 가지 선물', 24일 밤 10시 '스물여든', 25일 밤 10시 '아이 캔 온리 이매진'(케이블)이 방영된다.

특히 CGNTV가 제작한 단편영화 '스물여든'은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 헤매는 80대 할아버지와 취업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20대 청년의 이야기다.

12월 25일 방영되는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길 위의 노래'에서는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바리톤 김주택, 가수 박기영과 범키가 시청자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선물한다. 12월 31일 방영되는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특별편'에서는 시청자들이 받은 은혜와 프로그램 제작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CGNTV 성탄 및 연말 특집프로그램은 CGNTV 웹사이트, 모바일 앱 'CGNTV Live'로도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공동체의 아주 뜻깊은 연말

한강, 이촌, 영등포구로 맞춤전도집회

한강, 이촌, 영등포구로공동체가 맞춤전도집회를 이어가며 아주 뜻깊은 연말을 보내고 있다.

한강공동체는 지난 12월 12일(토) '우리는 한가족'을 주제로 유튜브와 줌(Zoom)으로, 이촌공동체는 지난 12일(토) '보이는 라디오-12월의 사랑'을 주제로 유튜브 실시간으로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는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초인종'을 주제로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영상(USB)'을 제공하고 있다.

문쌍찬 장로(한강공동체)는 "1년 동안 마음에 품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고, 최재은 순장(이촌공동체)은 "이번 공동체 맞춤전도집회 영상을 손윗동서 형님과 시청했는데 너무 좋아하셨다"면서 "앞으로는 조카들을 전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작성

차세대사역본부가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는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 또는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는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등을 입력해야 한다.

차세대 전임교역자가 새가족 정보(생년월일)를 확인하고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교역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의 절차를 이어간다. 차세대 교사는 nCare에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반 과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 배정 등을 한다. 문의: 02-3215-3521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신청 QR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우물 완공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2월 12일 남수단 케세리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줬다. 케세리 마을 주민 1천5백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우물 완공식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고, 코로나19 예방지침 등을 교육했다. 남수단 케세리 마을은 NGO 더멋진세상의 신규 사역지다. 지역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정은희 선교사(NGO 더멋진세상)는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과 선교지 교회가 힘을 합쳐 지역개발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2020 엔젤트리 4,182건 연결

엔젤트리 완료보고 대기 중

2020 엔젤트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4,182건이 연결되고, 완료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엔젤트리에는 유독 소외된 이웃들의 사연이 많아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빛이 났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엔젤트리에서 보낸 선물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조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엔젤트리 완료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엔젤트리 완료보고는 엔젤트리 사연대상자에게 선물을 발송한 성도가 각 캠퍼스 담당자에게 "**번 사연 선물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 김영선 기자

'크리스마스 포 유_The Day(그날)'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전도집회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이 지난 12월 9일(수) '크리스마스 포 유_The Day(그날)'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포 유_The Day(그날)'는 전도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수개월을 중보기도 하며 준비한 전도집회다. 이날 30여 명의 전도대상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순녀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면서 "친구의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부모님과 올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수원 성경일독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 온누리교회 '성경일독학교 신약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약 성경 5장씩 읽고 정리한다. 신구약 중간사, 사복음서, 사도행전1, 사도행전2, 서신서1, 서신서2, 요한계시록 특강, 총정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성경일독학교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283-7871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 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Power Prayer) 기도회'가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확장 이전한 서울역쪽방상담소 앞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 이전(移轉) 개소식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로 확장 이전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9-12로 확장 이전했다. 지난 10일(목) 서울역쪽방상담소 확장 이전을 축하하는 개소식이 있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시와 KT, 온누리복지재단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갑록 서울역쪽방상담소장은 "보다 넓고 쾌적한 장소에서 쪽방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확장 이전한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588㎡ 규모다. 지하 2층 샤워실, 자활작업장, 지하 1층 돌다릿골 빨래터, 장애인화장실, 지상 1층 커뮤니티 공간(주민 카페), 2층 사무실, 상담실, 3~4층 쉼터, 프로그램실, 정보화 교육실 등이 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김은하 선교사(영국)

저희는 화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매주 14~17명의 I국 이주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M형제는 9월부터 이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 11월 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L자매도 무슬림이지만 조금씩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12월 3일 M형제의 망명 신청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인터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인터뷰에 통과하지 못하면 힘든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M형제도 다른 이들처럼 전날까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힘겨워하던 중에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 정부 관계자가 M형제에게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인터뷰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인터뷰에 대해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M형제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M형제의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서 두 달을 하나님과 힘겨운 씨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M형제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7월 기도를 부탁했던 사역팀의 부리더가 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처음 부리더 제안을 받고 흔쾌히 승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7월 이후에는 기도를 부탁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저를 그 자리로 이끄시며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역팀은 47명의 선교사들이 15개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사역팀이 아니기에 앞으로 일 년은 각 지역과 팀원과 사역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역팀 전체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버리다

/ 장정렬 팀장(이슬람선교학교, 경기A공동체)

올해 초 계획했던 와이무슬림 과정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다.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최종 확정된 것은 지난 6월 중순이었다. 온라인 와이무슬림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험난했다. 모든 게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조사하고 문의하면서 세워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했다.

선교스쿨의 경우 수강생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준비 기간 내내 예배당 예배가 금지되어 온라인으로만 홍보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강의 영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부 강사들이 자료 유출에 따른 보안을 우려해서 강의를 사양했다. 긴급하게 새로운 강사 두 분을 초빙해야 했다. 스태프들도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는데 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시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다. 노르웨이에서 유학 중인 한 성도와 미국 얼바인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성도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와이무슬림 공고 모집을 보고 수강 신청을 했다. 6주 내내 시차를 극복하고 조모임까지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평택과 대전 성도들이 마지막 수료예배까지 함께 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버리고 모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감사였다.

이번 와이무슬림 과정에서는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수강생 가족 중에 무슬림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다. 선교지에 있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을 포함한 이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지 강한 도전을 받았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시기를 지나며 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교회 차원에서 스쿨영상을 과정별로 엄선해서 제작하고 운용했으면 좋겠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등 스쿨 과정들이 단계별로 준비되어 '퐁당'에 연계되면 좋겠다. 우리 가까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린다. 6주 동안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과 수강생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스태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창조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 한기원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신앙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진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강사님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번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생명체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진화를 거쳐 지금의 다양한 생명체가 생겼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된 가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동성애는 유전적 질병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말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깨닫는 시간이었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학교 교육과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진화론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진화를 믿게 되면 아담의 역사성과 죄의 기원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들이 깨어 교육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가장 완벽하고 성숙하게 창조하셨다. 피조세계에 생명체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진화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배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신앙적으로 믿는 것은 다르다.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도 가르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알 권리와 교육의 평등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온라인 성령수련회 참가 간증

마음의 할례

/ 신필여 자매(길청년부)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 중에서 최근 온라인으로 성령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인생의 사건이었다.

지난해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찢기는 아픔 속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이 처음에 비해서 무뎌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처를 떠올리는 상황에 직면하면 마음이 아프고 회피하고 싶어졌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버려진 것 같고, 거절감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금요철야예배에 가서 쏟아내며 기도했다. 답답하고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울고 또 울면서 원망이 드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모두 토로했다.

지난 8월 14일도 여느 때와 같이 금요철야예배에 갔다. 그날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들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까지 생겼다.

온라인 성령수련회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궁금해했던 '마음의 할례'가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내 마음의 표피가 벗겨져야 하는 것과 관련 있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기쁨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마음의 표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내가 흠이 난 것 같은 인생의 시간으로 인해 온전하지 않음을, 사역의 결과를 제멋대로 실패라고 규정한 교만함을 드러내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고, 내 삶의 생명력을 앗아갔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소음과 불순물로 가득 찬 내 마음 밭을 기경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자 허락된 시간 같다. 성령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다.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다.

장로칼럼

"온라인 갈렙선교학교에 초대합니다"

오명 장로
(중종로공동체
대표장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처했지만 온누리교회는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갖고 준비된 교회여서 그런 것 같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도 끊기지 않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OBC 등)을 통해 영성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영적 나태함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사탄의 달콤한 궤계에 빠져 점점 지쳐가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예배드리기 급급했던 예배에서 탈피해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공동체로서의 영적 담금질을 할 수 있도록 '제5기 온라인 갈렙선교학교'를 준비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선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다.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서 사명을 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갈렙선교학교는 그를 롤모델로 한다. 이번 제5기 온라인 갈렙선교학교는 막연히 알고 있던 선교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올해 7월 제4기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교육생과 조장으로 참여했다. 갈렙선교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끄러웠다. 조원들과 소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소명이라는 굴레에 너무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지금 해야 할 사명(How Mission)을 애써 모르는 체하고 있었다. 신학자 Herbert Kane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동시에 선교적 사명까지도 자연스럽게 주셨다"고 했다. 특별한 체험 없이도 누구에게나 부여된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갈렙선교학교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수 14:1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다. 갈렙선교학교의 슬로건이다. 지난 7월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한 제4기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전원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시간 내기 어려웠던 분들이 지역, 거리, 시간의 한계를 온라인을 통해 극복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지난달 소천하신 구본영 장로님께서 매년 실시하던 아웃리치를 가지 못하는 대신 선교사역의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갈렙선교학교 대상 연령대를 낮춰달라고 제안하셨었다. 구 장로님의 제안대로 30대까지 대상 연령층을 확대해서 여러 공동체에서 젊은 선교사역자들이 참여해서 67명이 수료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가든지, 보내든지'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한다. 제5기 온라인 갈렙선교학교가 바로 그 결단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제5기 온라인 갈렙선교학교
일정: 12월 27일~2021년 2월 21일
문의: 010-7708-7700

권사칼럼

정결한 신부의 상급

홍주희 권사
(강동 온누리교회)

나이가 60이 넘었다.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60을 넘어 회갑이 지났다. 남편에게 더욱 은혜를 입어야 하고, 나도 남편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제 얼마 후면 직장에서도 정년을 맞게 된다. 요즘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은 강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온 것, 회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한다.

회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 있다. 2018년 6월경에 외손주 믿음이가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때부터 나는 평소에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다. 예배 후 조용히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며 교회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주시길 간구하는 부르짖음이었고, 내 자아를 깨뜨리는 외침이었다. 나는 희귀병에 갇혀 있는 믿음이에게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새롭게 만났고, 내 속에 겹겹이 숨어 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외손주 믿음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된 회개기도 중 내 마음 깊이 와닿은 말씀이 있다. 이전에는 '아, 이런 말씀도 있네' 하며 가볍게 넘기던 말씀이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4~25).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고 싶다.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세상에서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상을 꼭 받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상급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것도 회개하였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한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었다는 마음이 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늘 상급을 받는 삶,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힘써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회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감사이고 축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속엔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기까지 한 처리해야 할 자아가 남아 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채로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나의 높아진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간다. 삶의 순간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에세이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이비오 목사
(양천공동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생활 고달파, 메시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새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O Come, O Come, Emmanuel)'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찬송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9세기경 중세 유럽 라틴어 미사에서 부르던 찬양인데 작사가와 작곡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아마 800년경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만들었거나 신부님이 성당에서 작사, 작곡했을 것이다.

이 찬양의 원제목은 'Veni Emmanuel'이라는 라틴어다. 가사는 7절까지 있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7일 동안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 한 절씩 불렀다.

이 찬양이 영국과 미국을 건너 한국까지 오게 된 계기는 1818년 1월 24일 캠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신학과를 졸업한 영국성공회 Jone M. Neale 목사에 의해서다. Neale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뇌가 명석해서 글을 잘 쓰고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였다. 하지만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를 샀고, 결국 런던을 떠나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 작은 마을로 파송된다. Neale 목사는 북서부 아프리카에서 고아원과 미션스쿨을 세워 고아들과 창녀들을 섬겼다.

하루는 Neale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서재에서 라틴어로 쓰인 〈Psalteroium Cantionum Catholicarum〉이라는 중세 찬양집을 발견하였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던 중에 'Veni Emmanuel'이라는 찬양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연주하고 부르기 시작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1850년 영국에서 'O Come, O Come, Emmanuel'이라는 곡으로 출판하게 된다. 이 찬양은 출판되자마자 영국과 유럽, 미주까지 퍼져나갔다. 한국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매년 성탄절마다 이 찬양을 연주하고 부르게 되었다.

이 찬양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임마누엘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내용이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할 때 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났다. 그들의 소망과 기다림은 2000년 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식민지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런던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Neale 목사에게도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 동일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으로 좌정하셔서 위로하시고, 곧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통해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이스라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생명 존중의 축복

의지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납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심을 깨달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이 너무 커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고후 1:8~9).

고난이 너무 심해서 결국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끊어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죽음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식량을 모두 던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은 밑바닥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밑바닥이 아닙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절망이 찾아온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 밑바닥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존심, 나에게 남아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며 공급하십니다.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 깨닫는다

둘째,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그 가정의 가치, 그 여인의 가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빵을 먼저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섬김과 나눔과 돕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배부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돕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극도로 가난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고, 무슨 섬김을 요구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사고의 한계입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가진 것이 거의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여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요, 고귀함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의 한 논문에서 포항, 경주, 영천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 회복탄력성, 사회적 책임과 자원봉사와의 관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인생의 행복, 삶의 만족도와 아주 의미 있는 연결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적 문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해 줘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극한 가난으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한 생명을 붙잡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동방기독교의 현재, 역사 그리고 특징

동방기독교의 기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동방기독교' 라는 단어를 꺼내면 '동방정교회!' 라며 대화를 이어나가신다. 그러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곤 한다. 상대방은 "아! 이게 아니군요"라며 대화를 원점으로 돌리곤 한다. 각 나라의 이름을 붙인 정교회는 동방기독교가 아니라 동방기독교의 일부이다. 동방기독교라는 용어는 '아시아 기독교' 를 지칭하는 말이다.

서방기독교와 대비되는 동방기독교를 총칭하기도 하지만, 동방기독교의 지역을 소아시아, 발칸반도, 동유럽, 중동 등지의 기독교 역사로 축소시키기도 한다.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동방기독교는 소아시아, 발칸반도, 동유럽, 중동 등지를 뛰어 넘어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중국, 한국과 인도까지 아시아 지역들을 포함한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기독교의 거점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옮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앗수르 기독교', '동방의 자녀' 라고 불렀다. 이들로부터 동방기독교가 시작되었다. 후일 에베소종교회의(431년) 이후 서방교인들이 동방의 자녀들에게 네스토리안(이단으로 정죄)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줄곧 핍박과 논쟁을 일삼았다. 동방의 자녀들은 이런 논쟁을 피하고 본질(선교)에 주력하기를 원하여 서방교인들로부터 분리를 선언하고 동방기독교단을 만들었다. 498년 동방기독교단이 서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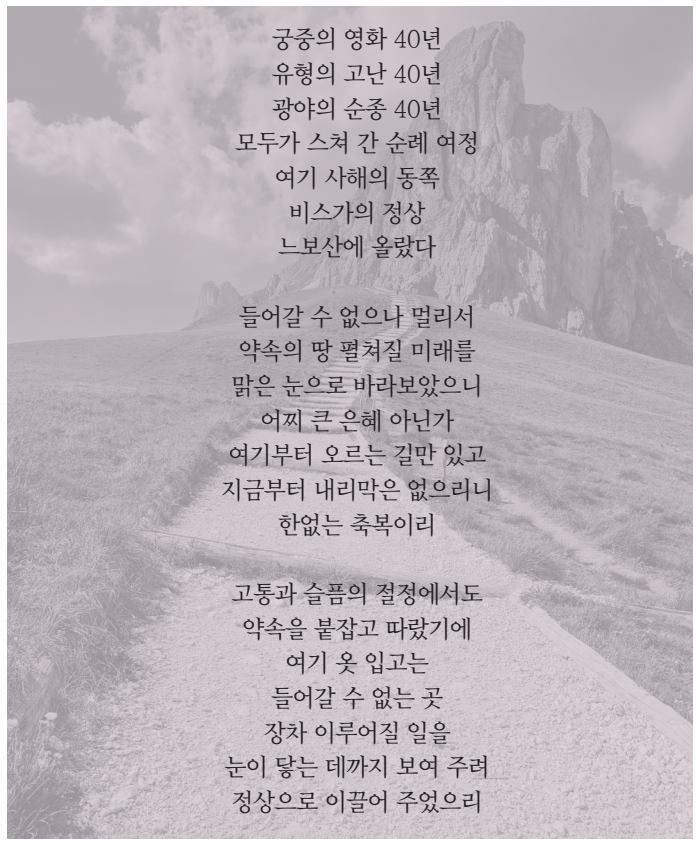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발칸반도와 동유럽을 제외하고 실크로드가 지나간 지역 전체와 그 주변 나라들이 주후 1000년을 전후로 동방기독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이슬람권과 불교권의 지역이었다. 동방기독교인들은 당시 야만인들이 산다고 알려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 주후 1000년경 세계 인구를 2억5천만 명에서 3억 명이라고 추산한다. 중국을 제외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나라에는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동방기독교의 주교는 당시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1천3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했다.

당신 실크로드 지역에는 복음이 편만했지만 동시에 이슬람도 흥하던 시기였다.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들이 지나간 곳곳에는 교회, 수도원, 기독교센터가 많이 건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터와 유물이 과거나 지금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다. 동방기독교는 이슬람과 긴장 상태 중에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다.

/ 최근봉 선교사(키르기스스탄,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느보산



궁중의 영화 40년
유형의 고난 40년
광야의 순종 40년
모두가 스쳐 간 순례 여정
여기 사해의 동쪽
비스가의 정상
느보산에 올랐다

들어갈 수 없으나 멀리서
약속의 땅 펼쳐질 미래를
맑은 눈으로 바라보았으니
어찌 큰 은혜 아닌가
여기부터 오르는 길만 있고
지금부터 내리막은 없으리니
한없는 축복이리

고통과 슬픔의 절정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따랐기에
여기 옷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장차 이루어질 일을
눈이 닿는 데까지 보여 주려
정상으로 이끌어 주었으리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용갑
길혜영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 현 송석근 송재호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흥 최성민 최성석 최용준
최혁중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유영 김한국 신현민
윤수신 장재원 전병천 최종현
최성규 하성희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강정모 김기범 김바울 김반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혜경
네트라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배랏라살리 박근명 박씨마 싱루아마놉
사키르 이원준 이승윤 이진이
유승덕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량 최병구 최일관 최정현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고원규 권수진 권영현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삼인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진성 김진희 김종균
김태광 김태영 김태주 김태환
김한국 나지혜 노동준 노태규
민혜영 박미애 박소망 박영규
박이호 박영우 박유진 박지수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빌 케
배명지 백승현 서영찬 서영철
송동주 송유진 송선애 송우항
승소영 신기한 신대종 신동혁
신현아 양주영 여지휘 여현구
오국헌 오명도 오준현 오태경
오현교 용상은 우승민 우형석
윤경선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태정 윤효정 이경건
이경아 이민희 이사무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성광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승기 이신입
이엘렌 이용민 이웅희 이은정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노완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새힘
장요셉 장윤진 전소리 정순덕
정에스더 정연상 주영상 주하늘
지수정 진성희 최규종 최은영
최선재 최휘준 표명철 한영철
한용태 허루슬란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의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석봉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박태성
배종수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신현종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편무옥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덕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권순형
곽진성 곽희준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금세종
김경돈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민찬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정훈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재두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헌 양상식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석우 윤석주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우경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응화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갑수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챠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배영근 신선호 심현보 안지연
안희준 오주영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진우 조민지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관수
김철진 김태완 박신웅 송영동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
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법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우윤상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택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 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한현희 코바야시 메구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현중 남 영
박이훈 서인택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이광철 이문호
이상헌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허규회 홍관희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임헌식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좌겸
김진용 김현희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서빙고 사회선교본부 계약직 간사 모집

모집: 계약직 간사 2명

업무: 탈북민 사역(주중사역 담당 1명, 남녀 기숙사 담당 1명)

우대: 주중사역 담당(아동교육 관련 경력자 우대), 남녀기숙사 담당(여성 한정, 요리가능, 여기 숙사에 거주 가능자)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고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물품 및 생필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맞춤직업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경비원,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형 인지훈련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 10시~16시, 내곡 쉼터,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50플러스센터 글짓기 대회 개최
내용: 센터의 건립 응원 문구 또는 격려의 메시지 작성
문의: 변은영PM(02-579-5060)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성탄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2/11(금) 강서 김지연 성도, 성북 김연주 성도 모친상 고 김정희

12/12(토) 동대문중랑 조경화 성도 부친상 고 조용희

12/13(주일) 신용산 김민석 성도 부친상 고 김흥배

12/14(월) 동작 박기범 집사 모친상 고 백종수

12/14(월) 용산 김명희 권사, 이수 김은영 성도 부친상 고 김상석

12/15(화) 동작 양인영 성도 부친상 고 양갑석

12/16(수) S브릿지 곽동한 성도 모친상 고 남분자

12/17(목) 분당B 서요덕 성도 부친상 고 서양배

CGNTV가 준비한
성탄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Merry Christmas!

2020 CGNTV 성탄특집 영화

라이프 오브 지저스 : 요한복음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만나는 영화

1편 : 12월 12일(토) 오후 10시
2편 : 12월 19일(토) 오후 10시
3편 : 12월 26일(토) 오후 10시

아이 캔 온리 이매진

전설적인 밴드 머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밀라드의 인생과
그의 노래의 탄생 뒤에 숨겨진 감동 실화

12월 25일(금) 오후 10시

*IPTV/케이블 방송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물 여든 (사람人택트휴먼드라마)

치매 노인 윤종구 할아버지와
그의 괴팍美에 점점 빠져드는
취준생 지훈의 이야기

12월 24일(목) 오후 10시

세 가지 선물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을 쓴
헨리 홉킨스가 세 조카를 위해 크리스마스
성곡에 쓰일 곡을 만들게 된 이야기

12월 20일(일) 오후 11시

나에게 오신 예수

예수의 탄생 전 마리아와
요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과정을 재현한 영화

12월 25일(금) 오후 10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은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의 삶과 신앙

12월 21일(월) 오후 10시

✷ 성탄특집 영화는 인터넷 업로드 되지 않으며, CGNTV / 라이브앱 / 웹사이트 '온에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CGNTV 시청 안내

IPTV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케이블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CGNTV 웹사이트 CGNTV 라이브앱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